

상교우서는 “교우님들께 올리는 글”이란 뜻으로 수원교회사연구소의 주보 정하상 성인의 『상재상서(上宰相書 : 재상에게 올리는 글)』를 사모하여 지어낸 소식지의 이름입니다.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 특집]

신자들의 증언 속에 드러나는 김대건 신부 ④

전번 호에 이어 신자들의 증언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시복재판록’[2011~2012년 수원교회사연구소에서 간행한 대조역주본]을 바탕으로 김대건 신부의 생애와 활동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김대건 신부, 서울과 용인 지역에서 사목활동을 하다 (1845년 11월경~1846년 4월)

1845년 10월 12일 강경을 통해 조선에 입국한 페레올 주교와 다블뤼 신부는 지방에서 조선말을 배웠고, 김대건 신부는 서울로 올라와 처음으로 사목활동[성사 집전]에 나섰습니다.



페레올 주교[만주 체류 시기]와 다블뤼 주교[청년 사제 시기]

1845년 12월경 페레올 주교가 서울로 올라온 후 김대건 신부는 지방까지 사목활동 범위를 넓히게 됩니다. 81회차 증인 김 프란치스코는 김 신부가 ‘서울도 전교하시고 용인 지방과 근처에도 성사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18회차 증인 김 막달레나와 27회차 증인 김 막달레나, 35회차 증인 변 아나스타시아, 45회차 증인 정 아

가타, 56회차 증인 남 테레사, 59회차 증인 한 바울라, 62회차 증인 김 도로테아, 97회차 증인 이 베드로는 김대건 신부에게 성사를 받았다고 증언했지만 그 장소를 명확히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증인들이 밝힌 자신의 고향이나 거주지들을 살펴보면 김 막달레나에서 한 바울라까지의 증인들은 서울에서, 김 도로테아와 이 베드로는 용인이나 그 인근 지역에서 성사를 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중 김 도로테아는 1846년 여름 당시 용인 굴암 회가마골[현재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목리]에 거주했다고 증언했습니다.

51회차 증인 함 막달레나는 1845년 가을에 서빙고[현재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에서 김대건 신부에게 성사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54회차 증인 유 바르바라는 무쇠막[현재 서울 마포구 신수동 지역] 심 주부의 집에서 성사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91회차 증인 박 가이아나는 남대문 밖 쪽우물골[현재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나 베드로의 집에서 김 신부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93회차 증인 원 마리아는 미나리골[현재 서울 서대문구 미군동 지역] 공소 김 회장 집에서 세례와 견진성사까지 받았다고 했습니다.

66회차 증인 정 바르바라는 양지 정쇠[현재 경기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정수리에 살 때 첫 성사를 양지 읍달안이[응다라니. 현재 경기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대대리]에서 김대건 신부에게 받았다고 했습니다. 68회차 증인 임 루치아는 첫성사를 김 신부에게 양지 터골[현재 경기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대대리]에서 받았고, 1846년에 김 신부가 은이 상품이[현재 경기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남곡리. 골배마실로 추정] 모친택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70회차 증인 오 바실리오의 양지 은이에서 김 신부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100회차 증인 최 베드로는 용인 공소에서 성사를 받았다고 했는데, 62회차 증인 김 도로테아가 살았던 용인 굴암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102회차 증인 이 마리아도 김 신부가 용인 지방에서 전교할 때 한 번 보고 성사를 받았다고 했으며, 그 이듬해 부활대축일[4월 12일]에 양지 본택에서 다시 보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양지 본택’은 김 신부의 모친이 살던 ‘은이 상품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대건 신부가 모친과의 짧은 만남을 뒤로 하고 서울로 올라가다 (1846년 4월 13일)

김대건 신부가 1845년 1월 부제로 귀국했을 때 서울에 머물면서 선교사제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자기 모친 고 우르술라를 찾아갈 수 없었습니다. 1845년 10월 신부로서 다시 조선으로 돌아왔을 때도 바로 모친을 만난 게 아니라 그해 연말이나 다음 해인 1846년 초 사목 활동을 위해 용인 지역으로 내려갔을 때 비로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신학생 선발 이후 10년 만의 만남이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증인 임 루치아는 1846년에 김대건 신부가 은이 상품이 모친택에 있었다고 했고, 증인 이 마리아는 1846년 부활대축일에 양지 본택에서 김 신부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의 만남은 그리 길지 못했습니다. 1846년 봄 다시 김 신부는 서울로 올라가게 되었는데, 임 루치아의 증언에 의하면 김 신부의 모친이 ‘부활대축일까지 기다리기를 청하여’ 부활대축일을 지내고 그 다음날 [4월 13일]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후 김 신부는 체포되어 9월 16일 새남터에서 순교했고, 모친과는 지상에서 이별하게 되었습니다.

모방 신부의 서한 42통과 첫 번째 서한

알려드렸듯이 연구소에서는 김대건 신부를 신학생으로 선발하고 가르친 스승이며 기해박해 순교성인인 모방 신부의 서한집을 준비 중입니다. 이번 지면에서는 모방 신부의 서한들에 관해 간략히 설명하고, 1832년 마카오에 도착해서 쓴 첫 번째 서한의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연구소에서 입수하여 판독·편집과 번역을 진행하고 있는 모방 신부의 서한은 총 42통입니다. 이 서한들은 1832년 마카오에서 파리외방전교회 본부로 쓴 첫 번째 서한부터 1839년 자헌하러 가기 전날 피신지에서 동료들·가족·친구들에게 쓴 마지막 서한까지, 8년에 걸쳐 작성되었습니다. 서한을 작성한 지역을 살펴보면 모방 신부의 이동 경로를 알 수 있습니다. 모방 신부는 마카오(1통)에 도착해서 중국 복건(5통)에서 머물다가 중국 사천이 아닌 조선으로 가기로 결정하였고, 조선을 향해 출발하여 강서(1통)와 북경(2통)을 거쳐서 프랑스 라자로회가 담당하고 있던 ‘달단’ 교우촌(11통)에 머물며 조선 입국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조선에 입국하려던 브뤼기에르 주교가 사망하자 모방 신부는 주교의 장례를 치른 뒤, 주교를 맞을 준비를 했던 조선인들을 국경 지역인 변문(2통)에서 만나 조선에 입국하였습니다. 조선에 도착한 이후에 쓴 서한들의 경우(20통), 발신지가 명시되지 않은 서한도 있고, 서울과 양지라고 명시되어 있는 서한도 있습니다. 서한의 수신인은 대부분 모방 신부가 자신의 여정과 사목활동에 대해 보고하는 모방 신부의 장상들이고, 동료 선교사제나 가족과 고향 본당의 주임 신부에게 쓴 서한도 있습니다. 모방 신부는 조선에 입국한 이후에 소속 선교단체인 파리외방전교회의 본부와 극동대표부뿐만 아니라 교황청 포교성성(현재 인류복음화성)과 포교성성 극동대표부에도 서한을 보내어 조선 교회의 상황과 사목활동에 대해 보고하고, 자신이 결정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 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모방 신부의 첫 번째 서한은 1832년 10월 12일 마카오에서 파리외방전교회 본부로 보낸 서한입니다. 출처는 파리외방전교회 고문서고 1260번 문서의 1~4쪽입니다. 이 서한은 가톨릭 선교를 후원하는 단체인 ‘전교후원회’의 잡지 『전교회연보』 35호(1834년)의 533~534쪽에 발췌 수록되었습니다. 다른 기존 편집본은 지정환 신부와 최승룡 신부가 판독·편집한 『모방 신부 서한 1832~1839』 제2판(2006) 4~5쪽에 있습니다. 이 기존의 편집본들을 바탕으로 원문과 대조하여 새롭게 판독·편집하고 있으며, 프랑스어 사료 판독·번역 경력자가 번역 작업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서한에서 모방 신부는 임지인 중국 사천대목구로 들어갈 계획에 대해 알립니다. 퉁킹(북 베트남)에서 코르네 부제와 합류하여 사천대목구에서 보낼 안내원들을 만날 계획이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내용은 자신이 마닐라에서 받은 극진한 환대에 대한 것입니다. 마닐라 대주교와 수도자 등으로부터 받은 환대를 상세히 전하고, 파리외방전교회 지도신부들이 마닐라의 신자들에게 찬사와 감사를 표해주시기를 청합니다. 이 서한에서 언급하는 코르네 당시 부제는 사천대목구로 갈 예정이었으나 가지 못하고 퉁킹에서 사목활동을 하다 1837년 순교한 성인입니다. 모방 신부의 첫 임지도 사천대목구였지만 조선으로 방향을 바꾸었고 조선에서 순교하였으니, 여러 가지 묵상 거리를 주는 서한이라 하겠습니다.

“죽어도 천주님을 배반치 않겠다”

얼마 전(2021.6.8.~11.)에 주교회의 의장 이용훈 수원교구장 주교님께서 로마 교황청을 방문하셨습니다. 주교회의에서 2009년부터 준비를 시작하고 4년간의 시복 재판 법정(2017.2.22.~2021.3.25.) 과정을 거쳐 마련한, ‘하느님의 종 이벽 요한 세례자와 동료 132위’(이하 ‘하느님의 종 133위’) 시복 예비심사 문서를 교황청 시성성에 제출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느님의 종 133위’는 초기 박해부터 병인박해까지 박해를 받아 순교하셨으나 아직 시복시성 받지 못하신 분들로, 새로운 연구성과가 더해져 명단에 오르신 분들이십니다. 지난 2014년 8월 17일 광화문 광장 ‘시복식’에서 복자가 되신 ‘하느님의 종 124위’처럼, ‘하느님의 종 133위’도 복자되시는 은총을 곧 받게 되시리라 믿으며 기대도 해 봅니다.

이번 ‘하느님의 종 133위’ 가운데에도 수원교구 지역 내에서 순교하신 분이 많습니다. 순교지로 구분하면 수원 17위(황 요한, 심원경 스테파노, 윤평심, 홍창룡, 김사범, 고시수 야고보, 권중심, 박익서 사바, 박원서 마르코, 박익서, 김양범 빈첸시오, 서여심, 윤자호 바오로, 박태진 마티아, 박선진 마르코, 지 타대오, 원 프란치스코), 남한산성 9위(김덕심 아우구스티노, 서태순 아우구스티노, 이조여 요셉, 정은 바오로, 정 베드로, 김윤심 베드로 알칸타라, 김성희 암브로시오, 정여삼 바오로, 이 요한), 죽산 8위(여기중, 문 막달레나, 정덕구 야고보, 조치명 타대오, 김 우르시치나, 최제근 안드레아, 방 데레사, 유 베드로), 양근 5위(유한숙, 조상덕 토마스, 김일호, 장사광 베드로, 손 막달레나), 남양 2위(김 필립보, 박 마리아), 여주 2위(정종호, 임희영)이십니다.

‘하느님의 종 133위’에 대한 시복 예비심사가 가능했던 것은, 기록을 통해 순교 과정과 신앙 고백을 확인할 수 있고 거기에 순교 의미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하려는 우리 교회의 노력이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종 133위’ 가운데 병인박해로 순교하신 분에 대한 기록은 대부분 『병인치명사적』에 있습니다. 남한산성에서 순교하신 ‘하느님의 종 133위’ 이 요한의 “죽어도 천주님을 배반치 않겠다”와 같은 생생한 신앙 고백을 『병인치명사적』(역주본 5책 111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백신욱 베드로(연구원)

소식과 공지

▣ 『교회사학』(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19호 원고 모집

- 투고 마감일 : 2021년 7월 31일 / 분량 : 200자 원고지 200매 안팎
- 보내실 곳 : 연구소 홈페이지(casky.or.kr) [온라인 논문투고 바로가기]
- 자세한 사항은 연구소 홈페이지에 있는 『교회사학』 투고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기후원(CMS) 전환 안내

매월 자동이체로 후원해주시는 후원회원님께서 CMS 출금 방식으로 전환을 부탁드립니다. 후원해 주시는 내역(성함과 금액)을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어 업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거래 은행에 자동이체 송금을 먼저 해지하시고, 연구소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 후원금 이체 은행

농협 : 221091-55-000541 (예금주: 천주교 수원교구 수원교회사연구소)
신협 : 131-013-870130 (예금주: 수원교회사연구소)